

독일의 생활체육 육성정책과 스포츠클럽

송형석,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독일은 자타가 공인하는 생활체육 선진국이다. 이에 걸맞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9만 개가 넘는 스포츠클럽이 결성되어 있으며,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다. 독일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말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생활체육 육성 정책 덕분이다. 한편 독일의 생활체육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비가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스포츠클럽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의 개방성이 보장된 비영리 단체의 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공적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적 구조가 변하고, 생활양식의 다양화 및 개인화로 대중의 욕구 구조가 바뀌면서 스포츠클럽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요자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건립해야만 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선해야만 하며,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스포츠클럽이 계속해서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개방적 비영리 단체라는 위상을 고수해야만 하는데 계속되는 상업화 경향으로 인해 이러한 위상 고수가 쉽지 않다. 한편 공공 체육 시설 사업의 민영화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방적 공익 추구 위상의 고수나 아니면 시장의 논리에 편승할 것이냐 하는 스포츠클럽들의 고민에는 전통적으로 표방해 왔던 사회시장주의와 새롭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독일사회의 깊은 고민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2009년 7월

우리는 흔히 독일을 일컬어 '생활체육의 선진국' 또는 '생활체육의 천국'이라고 말한다. 독일에서 살아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도심의 숲에는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가 노르딕 워킹이나 조깅에 열중하고 있다. 숲 중간 중간에 있는 축구장, 테니스장, 하키장 등의 체육 시설에서는 이리 저리로 공을 패스하는 사람들, 라켓으로 공을 치는 사람들, 스틱을 들고 뛰어 다니는 사람들이 제 각기의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도심의 숲 가장자리로는 자전거 도로가 곧게 뻗어 있고 여기에는 삼삼오오 무리를 이루어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독일에서 이런 생활체육 광경을 만나기란 결코 어렵지 않다.

독일 생활체육의 중심에는 스포츠클럽이 있다. 독일의 생활체육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와 관련된 통계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 쾰른독일체육대학 스포츠경영연구소, 독일올림픽체육회가 2008년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독일에는 90,467개에 달하는 스포츠클럽이 있고, 여기에 등록된 회원의 수는 2,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독일의 전체 인구가 8,300만 명임을 감안하면 독일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스포츠클럽 회원인 셈이다. 사실 스포츠센터나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모임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에 생활체육 참여 비율은 전 국민의 70%를 상회한다. 독일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독일에서 생활체육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독일의 생활체육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이 물음들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며, 아울러 결론을 대신하여 독일 생활체육의 당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독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 】

독일의 생활체육이 오늘날처럼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195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독일 연방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체육단체의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덕택이었다.

독일의 생활체육이 오늘날처럼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195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독일 연방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체육단체의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덕택이었다. 1959년 독일체육회와 그 산하단체, 그리고 스포츠클럽들은 스포츠가 경쟁과 성취를 지향하는 선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건강과 휴양을 목적으로 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스포츠 제2의 길'을 결의한다. 그 이후 생활체육은

우수선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 체육과 더불어 독일체육회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1966년 독일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의지를 독일스포츠현장에 명문화하여 발표하였고, 1970년 관할업무 전담원칙에 따라 의결 기구 내에 생활체육연방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사실 생활체육을 뜻하는 독일어 Breitensport는 원래 최상의 경기 기량을 지닌 엘리트 선수들을 길러내기 위한 넓은 토대에 기반하고 있는 스포츠 발달 피라미드 모형에서 따온 말이다. 그러나 점차 전문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여러 학자들은 스포츠 발달 모형에 대해 의문을 품어 왔다. 우수한 선수들은 넓은 토대에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대중 역시 우수 선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 즐거움, 친교를 위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생활체육은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기 위한 토대가 아니라 대중의 체력과 건강에 대한 욕구 충족이라는 독자적 목적을 추구하는 독립 영역으로 분화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생활체육의 분화 및 발달은 앞서 언급한 ‘스포츠 제2의 길(Zweiter Weg des Sports)’, 1961년부터 실행한 ‘건강, 놀이, 기분 전환을 위한 황금 계획’(Goldener Plan für Gesundheit, Spiel und Erholung: 이하 ‘황금 계획’), 그리고 1970년부터 전개된 ‘트림 캠페인’ 같은 일련의 생활체육 육성 정책을 통해 가속화되었다.

스포츠 제2의 길

‘스포츠 제2의 길’이란 독일체육회(DSB)가 1959년 뒤스부르크에서 결의한 생활체육활성화 운동이다. 독일체육회는 어떤 이유에서 이 운동을 ‘제2의 길’로 명명했을까? 독일에서 스포츠란 전통적으로 경기, 경쟁, 성공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취 지향적 활동이었다. 따라서 노약자나 여성, 장애인은 물론이고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인조차도 경쟁 위주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스포츠는 오직 젊고 왕성한 체력을 지닌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셈이다. 독일체육회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성취 지향적 스포츠 인식에서 탈피하여 스포츠가 건강, 체력, 친교, 즐거움 등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운동을 ‘제2의 길’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의식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독일의 사회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 더미 위에서 좌절하고 있던 독일인들은 1954년 스위스 베른에서 날이든 월드컵 승전보를 접하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된다. 이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된 산업화와 함께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급격하게 전개된 산업화는 한편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독일에서 스포츠란 전통적으로 경기, 경쟁, 성공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취 지향적 활동이었다. 따라서 노약자나 여성, 장애인은 물론이고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인조차도 경쟁 위주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독일체육회는 문명 질병의 증가와 놀이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의 대두라는 두 가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만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제2의 길'을 결의한 것이다.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운동 부족의 만연에 따른 문명 질병 발생 빈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한편 경제 부흥으로 대중의 여가 시간이 크게 늘면서 건강과 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놀이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독일체육회는 문명 질병의 증가와 놀이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의 대두라는 두 가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만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제2의 길'을 결의한 것이다.

이 운동의 구체적인 실행 목표는 새로운 체조와 스포츠클럽의 결성을 장려하고, 독일체육회 내에 생활체육 전담 분과를 설치하며, 스포츠클럽 활동에 소극적인 회원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만들고, 아직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 등이다. 또한 산업체, 군부대, 경찰서, 교회 등의 공공 단체 내에 스포츠 동호회를 구축하고,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 가족 단위의 참가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제2의 길'이 결의된 이후 스포츠클럽들도 연습, 훈련, 경기 같은 전통적인 경쟁 및 성취 지향적 경기스포츠 업무 외에 대중의 건강, 놀이,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체육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경쟁성이 배제된 프로그램과 참가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난이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 대상의 확대를 꾀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독일의 생활체육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황금 계획

황금 계획이란 독일올림픽위원회가 1959년에 발표하고, 196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말한다. 당시 독일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게오르그 폰 오펔은 1959년 10월 2일 하노버에서 열린 제5차 연례 총회에서 독일 국민의 열악한 건강 상태와 빈약한 놀이 및 생활체육 시설 상황을 설명한 후, 이의 타개를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여가와 생활체육 시설의 계획 및 재정 지원의 법제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이것을 황금 계획으로 명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황금 계획’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그 이유는 이것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은 인간의 최고 자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황금 계획은 놀이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통해 독일 국민이면 누구나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육상, 수영, 체조 같은 스포츠 기본 종목들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을 주도한

게르트 아벨벡은 1956년부터 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하여 4년여에 걸쳐 수정, 보완하였고, 1959년 최종적인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1961년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약 170억 마르크¹⁾를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독일 전역에 걸쳐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체육관, 실내 및 실외 수영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이 약 1억 2700만㎡ 확장되었다. 목표 달성 비율을 보면, 체육관은 181%, 실내 수영장은 172%, 어린이 놀이터는 190%로 전 분야에 걸쳐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황금 계획을 통해 독일의 스포츠 시설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본 종목을 위한 시설 건립에만 치중한 나머지 새롭게 생겨난 스포츠 수요를 충족시켜 줄 시설은 매우 부족했고, 이런 이유에서 2차 황금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8년 독일올림픽위원회에서 황금 계획의 주도권을 이어 받은 독일체육회는 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스키처럼 특정 시설을 필요로 하는 종목에 대한 참여도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을 이유로 2차 황금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차 황금계획의 필요성은 1990년 통독 이후 구동독의 5개 주가 통일된 독일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새롭게 편입된 5개 주의 스포츠 시설은 양적인 면에서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고,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시설의 용도 역시 생활체육이 아닌 경기 선수의 훈련 및 육성에 적합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연방정부로부터 구동독 지역에 대한 2차 황금 계획의 실현을 위해 예산을 할당 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 지역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재건과 발전에 우선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체육회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1992년 “동부 황금 계획(Goldener Plan Ost)” 1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당시의 슬로건은 “황금 메달에서 황금 계획으로”였다. 이 슬로건에는 지금까지 구동독의 스포츠 정책이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만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대중을 위한 스포츠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동부 황금 계획을 통해 구동독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체육관과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이 크게 확장, 개조되었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이 현대화되고, 라이프치히 경기장이 개조되어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가 구동독 지역에서도 치러질 수 있었다.

동부 황금 계획을 통해 구동독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체육관과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이 크게 확장, 개조되었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이 현대화되고, 라이프치히 경기장이 개조되어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가 구동독 지역에서도 치러질 수 있었다.

트림 캠페인(Trimm-Aktion)

트림 캠페인은 ‘신체를 단련 한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 trimmen과 캠페인을 뜻하는 명사 Aktion의 합성어이다. 독일체육회는

독일올림픽위원회가 1959년 결의한 ‘스포츠 제2의 길’ 운동에 고무되고, 1967년 노르웨이에서 전개된 ‘Sport for All’ 운동에 자극 받아 1970년부터 대대적으로 트림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이 캠페인에 동원된 구호는 “스포츠를 통해 당신의 체력을 단련하라!”, “다시 달리자!”, “다시 체육을!”, “스포츠는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수를 130에 맞춰라!”, “함께 능동적으로”, “클럽에서 하는 스포츠가 가장 좋다!” 등이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가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여러 산업체가 재정 후원을 하였다.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신문과 잡지는 70회,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50회에 걸쳐 트림 캠페인 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하거나 방송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200만 마르크에 해당한다. 의료보험회사들도 약 80만 마르크 상당의 선전 수단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독일 전역에는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홍보를 위한 정기간행물이 간행, 배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캠페인이 시작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전 독일 국민의 60%가, 31개월 후에는 93%가 이 운동에 대해 알게 되는 성과를 거둔다. 다음은 독일체육회가 1980년에 발표한 트림캠페인 10년의 중간보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전 국민의 90% 이상이 트림 캠페인을 알게 되었다.
- 전 국민의 49%가 이 운동에 참가했다.
- 사이클, 수영, 조깅 같은 지구력 종목들이 선호되고 있다.
- 청소년의 참여도가 높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자연 환경에서 행해지는 종목들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트림 캠페인은 한편으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중에게 생활체육의 유용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몽을 통해 대중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안녕, 건강, 체력, 친교, 즐거움 등에 대한 욕구를 일깨웠다.

트림 캠페인은 한편으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중에게 생활체육의 유용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몽을 통해 대중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안녕, 건강, 체력, 친교, 즐거움 등에 대한 욕구를 일깨웠다.

이상에서 언급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독일의 생활체육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59년 510만 명에 불과했던 독일체육회 회원 수는 이 정책들이 시행된 지 12년 후인 1971년 1,08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1981년에는 1,760만 명으로, 1991년에는 2,310만 명으로, 1998년에는 2,600만 명으로, 2006년에는 2,700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는 전적으로 '스포츠 제2의 길', '황금 계획', '트림 캠페인' 같은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의 결과이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최전선에서 정책 실현을 위해 직접 뛰었던 스포츠클럽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성공은 불가능했다. 이제 독일의 생활체육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독일 생활체육의 견인차로서 스포츠클럽

독일의 생활체육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증가가 스포츠클럽의 증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0년 29,500개에 불과했던 스포츠클럽은 1970년 40,000개, 1980년 53,000개, 1989년 66,500개, 2006년 현재 90,467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스포츠클럽의 강점

생활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독일인들이 스포츠클럽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클라우스 하이네만은 그 이유를 저렴한 회비, 접근의 용이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세 가지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첫째, 스포츠클럽 회비는 상업 스포츠 시설 이용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상업 스포츠 시설 이용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에서 소재한 피트니스 스튜디오의 경우 월 80-100유로 정도이다.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경우 성인의 평균 월 회비는 약 7.5유로(약 1,300원)로, 이 액수는 노동자들이 1시간 동안 일하고 받는 최저 비용 8유로보다 적다. 청소년은 약 4.5유로, 어린이는 약 3.5유로, 가족 단위는 14유로를 월 회비로 지불한다. 클럽에서는 월 회비 이외에도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를 요구하지만 절반 이상의 클럽에서는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클럽 가입비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10유로, 성인은 16.5유로, 가족은 25유로 정도이다. 최근 들어 스포츠클럽의 회비와 가입비가 점차 올라가는 추세지만 다른 생활체육 공급업체들에 비해 여전히 그 액수가 적다.

둘째, 상업적 스포츠 시설은 대개 회원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스포츠클럽은 대중 소도시뿐만 아니라 도회지나 시골 어디에나 있다.

독일의 생활체육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증가가 스포츠클럽의 증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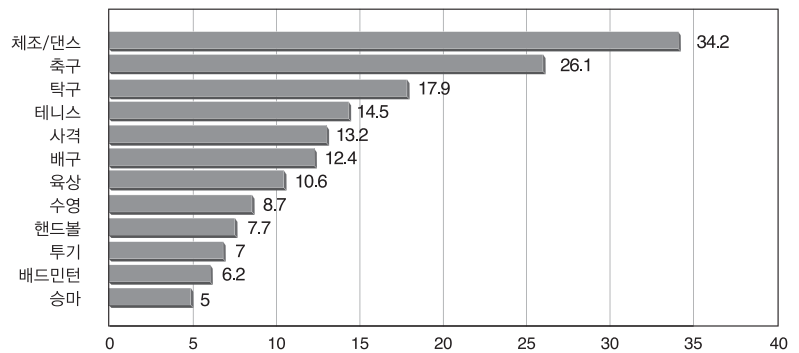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와 연관된 거의 모든 신체 운동 형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독일의 전체 스포츠클럽 가운데 5% 이상이 제공하는 종목만을 간추리면 12개가 남는다.

표. 주민의 수와 지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분포 비율(단위: %)

주민의 수	지역			계
	북부	중부	남부	
5,000명 이하	34.4	21.8	35.1	27.1
20,000명 이하	22.8	24.2	34.9	25.8
100,000명 미만	18.0	28.6	21.9	24.9
100,000명 이상	24.8	25.5	8.1	22.2
계	100.0	100.0	100.0	100.0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포츠클럽은 거주 인구가 5,000명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지역부터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지역에 이르기까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스포츠클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셋째,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와 연관된 거의 모든 신체 운동 형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독일의 전체 스포츠클럽 가운데 5% 이상이 제공하는 종목만을 간추리면 12개가 남는다. 아래 그림은 이 12가지 종목들의 우선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수치는 전체 스포츠클럽 가운데 해당 종목을 제공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비율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포츠클럽은 축구, 배구, 핸드볼처럼 상업적 스포츠 시설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단체 종목들도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스포츠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들도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사로는 게임을 포함한 파티, 하이킹 여행, 스포츠 자격증 취득 기회 등이 있으며, 스포츠와 무관한 행사로는 축하 행사, 사고 모임, 야유회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스포츠클럽을 찾는다.

스포츠클럽의 재정 운영

그렇다면 스포츠클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회원들이 내는 가입비와 회비만으로 클럽 운영이 가능할까? 그것만으로 시설사용료, 지도자 및 운영자 인건비, 보험료, 용구 구입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가입비와 회비만으로 클럽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 스포츠클럽의 전체 예산 가운데 회원이 내는 가입비와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되는가?

스포츠클럽은 가입비와 월 회비 이외에 체육단체, 연방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적 보조금, 자체 사업 수익, 기부금, 각종 광고 수익 등을 통해 운영 예산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스포츠클럽은 국가로부터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납세자가 클럽에 기부금을 낼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이 이와 같이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포츠클럽이 상업적 스포츠 공급자들과 달리 이러한 혜택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공익 추구를 목적(공익추구권)으로 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이 보장된 비영리 조직이라는 법적 위상을 지니기 때문이다.

독일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시 보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는 보조 수혜자 자신의 재정과 잠재력이 과제를 극복하는데 충분치 않을 때만 보조한다는 자립을 위한 보조의 원칙이다. 피트니스 스튜디오나 상업적 스포츠 시설은 이윤 창출을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질 좋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높은 회비를 요구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회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기가 어렵다. 한 마디로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참여의 개방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스포츠클럽은 저렴한 회비를 통해 참여의 개방성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이윤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스포츠클럽이 지출하는 인건비와 시설 사용료의 비율 역시 피트니스 스튜디오나 상업적 스포츠 시설과 비교할 때 월등히 적다. 인건비는 대개 사무담당 임직원과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지불되는데, 스포츠클럽은 대부분의 사무담당 임직원이 자원 봉사 요원이므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독일의 스포츠클럽 회원 가운데 실제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나머지는 대개 자원 봉사나 친교 활동을 목적으로 클럽에 가입한다. 2006년 현재 독일의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 봉사 요원은 4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자면 연간 수십조 유로의 인건비가 절감되고 있는 셈이다. 시설 임대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그다지 많지 않다. 전체 90,467개의 스포츠클럽 가운데 42.3%인 38,300개의 클럽이 자체의 스포츠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클럽들은 자체

독일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시 보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는 보조 수혜자 자신의 재정과 잠재력이 과제를 극복하는데 충분치 않을 때만 보조한다는 자립을 위한 보조의 원칙이다. 피트니스 스튜디오나 상업적 스포츠 시설은 이윤 창출을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만 어느 정도의 비용만을 투입할 뿐이다. 한편,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클럽들은 대개 공공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낸다.

【 독일 생활체육의 당면 문제 】

최근 독일의 스포츠클럽들은 내부와 외부 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내부와 외부 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스포츠 수요자의 인적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다양화 및 개인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는 대중의 스포츠 욕구 구조를 대폭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최근 독일의 스포츠클럽들은 내부와 외부 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스포츠 수요자의 인적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다양화 및 개인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는 대중의 스포츠 욕구 구조를 대폭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제 생활체육의 견인차로서 스포츠클럽은 점차 늘어나는 노인층 회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고, 새롭게 유행하는 스포츠 종목들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새로운 시설을 건립해야만 한다. 1975년 1차 황금 계획 종결 이후 기존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거의 없어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와 물가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 예산의 초과 비용도 클럽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독일올림픽체육회와 스포츠클럽들은 새로운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기존 시설의 보수, 그리고 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독일의 국가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이러한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독일정부는 유럽연합의 주도 국가로서 새롭게 EU에 편입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통독 이후 구동독 지역의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지출로 인해 재정 형편이 그다지 여유롭지 못하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몰아닥친 신자유주의 열풍은 분배보다는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정부가 담당해 왔던 공적 기능을 축소시켰고, 적지 않은 공익사업을 이윤 추구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몰아닥친 미국 발 금융위기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독일의 스포츠클럽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6년 2년간 스포츠클럽의 지출 및 수입의 추이를 조사한 연구 결과 보고서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급격한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스포츠클럽의 지출 예산 가운데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회원 및 시설을 위한 보험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 예산 가운데 공적 지원금의 비중은 그대로인 반면에 회비의 비중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클럽이 지도자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회비 인상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공익성과 개방성을 내세움으로서 공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던 스포츠클럽이 공적 지원의 동결로 말미암아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회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에 공익 기능의 약화로 스포츠클럽은 국가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독일올림픽체육회는 위에서 언급한 난국을 타개하고 아울러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국가 목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스포츠가 국가 목표로 설정될 경우 체육단체와 스포츠클럽은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 목표에는 사회국가 원칙, 남녀평등, 유럽통합 실현, 자연적 생활토대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법에 명기된 국가 목표는 국가 기구로 하여금 특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타난 가치를 늘 염두에 두도록 촉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독일올림픽체육회는 독일기본법 20a조 2항에 “국가는 문화와 스포츠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열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이 가운데 생활체육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스포츠는 독일 최대의 시민운동이다.
- 둘째, 스포츠는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 셋째, 스포츠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사회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회화 기제이다.
- 넷째, 스포츠는 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
- 다섯째, 스포츠는 재현과 동일시를 통해 국민 화합에 기여한다.
- 여섯째, 스포츠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일곱째, 스포츠는 다양한 공적 과제를 떠맡고 있다.
- 여덟째,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 아홉째, 스포츠는 독일인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비관적인 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사실 이 내용들은 스포츠가 담당해 왔던 실제 기능이라기보다는 바람의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각각의 기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스포츠가 국가 목표로 설정될 경우 체육단체와 스포츠클럽은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 목표에는 사회국가 원칙, 남녀평등, 유럽통합 실현, 자연적 생활토대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독일 사회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스포츠가 추구해야 할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스포츠 인프라의 건립, 보수, 유지에 요구되는 공적 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사업의 민영화 또는 상업화를 적극 제안하고 있다. 민영화 또는 상업화란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사적 자금으로 공적 자금을 대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스포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적으로 사기업에 위임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들의 제안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협력관계 형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국가와 관련 기업들은 제 각기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자금 동원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각 참여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단행한 공공 체육 시설 매각의 부정적 경험²⁾으로 인해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방적 공익추구 위상의 고수냐 아니면 시장의 논리에 편승할 것이냐 하는 독일생활체육단체들의 고민에는 전통적으로 표방해 왔던 사회시장주의와 새롭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독일사회의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 후주 |

- 1)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7조 원,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조 원
- 2) 독일정부는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다수의 공공 체육 시설을 미국계 기업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이를 매입한 미국계 기업들은 시설투자를 통한 임대 및 사용 수입 증진 보다는 부동산의 시세 차익에만 관심이 있어 기존 시설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베르너 캠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9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